

136km 토종에이스 백정현의 인간승리

2007년 데뷔후 첫 'KBO 월간 MVP'
(7~8월)

삼성 최완투수 백정현은 올 시즌 거의 모든 부문에서 '커리어하이'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다. 프로 경력 15년 만에 처음으로 시즌 두 자릿수 승리를 벌써 챙겼고, 2점대 중반의 평균자책점(ERA)으로 국내투수를 가운데서는 1위를 달리고 있다. 투타에서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KBO리그 7~8월 월간 MVP로도 선정됐다. 떨어진 구속을 노련한 관력으로 대신하며 늦게나마 전성기를 활짝 열고 있다.
스포츠동아DB



강속구도 땅볼 유도할 승부구도 없지만
관록의 타이밍 싸움으로 최고 선발 우투
7~8월 6경기 38.2이닝 소화 5승무패
올해 21경기 ERA 2.54 토종투수중 1위
'오키나와 커쇼'서 '4계절 커쇼' 대반전



커리어 전체를 놓고 보면 '늦게 핀 꽃'이지만, 한 시즌 단위로 쪼개면 '일찍 피고 지는 꽃'이었다. 스프링 캠프 때 낳은 기대감을 정규시즌까지 이어가지 못했던 '만년 유망주'가 더 느려진 구속으로 오히려 힘을 내고 있다. 백정현(34·삼성 라이온즈)은 지금 리그 최고의 선발투수다.

KBO는 8월 7~8월 월간 최우수선수(MVP)로 백정현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2007년 데뷔 후 첫 경사다. 최완 백정현은 7~8월 6경기에서 38.2이닝을 소화하며 5승무패, 평균자책점(ERA) 1.16의 압도적 퍼포

먼스를 보여줬다. 6월 5경기에서도 2승무패, ERA 0.88로 역투해 월간 MVP 후보에 올랐으나, 투표에서 아쉽게 밀린 바 있다. 백정현에게는 상금 200만 원과 함께 부상으로 75만 원 상당의 신한은행 골드바가 주어진다. 신한은행의 후원으로 모교 대구중에는 선수 명의로 기부금 100만 원이 전달된다.

후보자들의 성격이 워낙 쟁쟁했기에 어느 때보다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됐다. 해당 기간 5경기에서 30이닝을 소화하며 2승무패, ERA 0.30을 기록한 라이언 카펜터(한화 이글스·ERA 1위)는 물론 11경기에서 1승7세이브 ERA 2.31을 마크한 김원중(롯데 자이언츠·세이브 공동 1위)도 유력 후보였다. 25경기에서 타율 0.357로 타율, 안타, 득점 1위에 오른 황재균(KT 위즈)과 20경기에서 타율 0.286, 8홈런으로 장타력을 뽐낸 나성범(NC 다이노스)도 후보였다. 하지만 백정현은 기자단 투표 32표 중 29표(90.6%), 팬 투표 32만807표 중 15만9851표(49.8%)를 휩쓸며 당당히 1위에 올랐다.

한두 달 반짝 활약이 아니라 더 가지 있다. 백정현은 7월까지 올 시즌 21경기에 선발등판해 11승4패, ERA

2.54를 기록했다. ERA 전체 4위인데, 국내투수들 중에선 1위다.

시속 150km 이상의 빠른 볼도, 땅볼을 유도할 수 있는 주무기도 없다. 실제로 백정현의 올 시즌 포심패스트볼 평균구속은 136.4km이며, 땅볼/뜬공 비율도 0.92로 뜬공이 더 많다. 넓지 않은 대구삼성라이온즈 파크를 홈구장으로 쓰는 투수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요건이다. 그럼에도 특유의 타이밍 싸움을 통해 타자들과 승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 좀처럼 공을 보여주지 않는 디펜션 동작 때문에 타자들이 느끼는 체감구속은 스피드건에 찍히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

'오키나와 커쇼', 매년 스프링캠프 때마다 주목 받으며 클레이튼 커쇼(LA 다저스)와 비교됐던 백정현은 '봄의 사나이'였다. 정작 여름과 가을, 정규시즌에는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150km까지 찍히던 속구가 사라졌음에도 지금 그는 리그에서 손꼽히는 최상위 선발투수로 자리매김했다. 2021년 백정현에게 4계절은 온통 봄이다.

▶ 프로야구 관련기사 3·4면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예능부자' 문세운 전성시대

'1박2일' '놀토' 등 진행프로만 9개
부캐 '부끄똥' 신곡 뮤비 100만뷰
제작진과 함께 고민하는 진짜 프로

개그맨 문세운(39)은 요즘 채널만 돌리면 나오는, 그야말로 날아다니는 '전성기'를 맞고 있다. KBS 2TV '1박2일 시즌4', tvN '놀라운 토요일-도레미마켓' 등 출연 예능프로그램만 9편에 달한다. 180cm의 키와 100kg이 넘는 체구만큼 '크고 무거운'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게도 "개그맨으로 불리는 것이 부끄러운 날들"이 있었다. 갓 데뷔한 무렵이던 2001년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생전 주변 사람들에게 "내 아이들이 개그맨이야"라고 자랑하는 말을 듣고 "내가 과연 자랑할 만한 일을 하고 있나" 싶어 마음이 무거웠다.

이후 20여 년 동안 아버지의 '자랑'에 어울리는 개그맨이 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다. 도전도, 고생길도 마다하지 않았다. 지난해 KBS 연예대상 쇼·버라이어티 부문 최우수상을 품어 안고서야 비로소 "아버지께서 실컷 자랑해도 되는 아들"이 됐다.



개그맨 문세운이 8월31일 NQQ·디스커버리채널 코리아의 '고생 끝에 밥이 온다' 제작발표회에서 웃고 있다. 뉴스

● '똥똥이'의 무한 변신

2001년 S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이후 꾸준히 무대를 밟았지만, 좀처럼 '한 방'은 터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길어지는 무명의 시간을 허투루 보낼 수는 없었다. 2006년 영화 '천하장사 마돈나', 2008년 KBS 2TV 드라마 '쾌도 홍길동' 등에 조연으로 출연하면서 능청스러운 연기력을 갈고닦았다.

2015년 코미디TV 예능프로그램 '맛있는 녀석들'을 만나 마침내 전성기의 문을 활짝 열었다. 김준현, 유민상, 김민경과 함께 맛집을 찾아다니는 프로그램은 "언제나 음식에 진심"인 그에게 안성맞춤이었다. 손가락에 탐처럼 쌓은 음식을 깔끔하게 먹어 치우는 '한입만' 퍼포먼스로 시청자 뇌리에 이름 석 자를 깊게 각인시켰다.

그렇다고 안주하지 않았다. 8월22일 '부끄똥'이란 부캐(제2의 캐릭터)로 '은근히 낮가려요'라는 신곡을 냈다. 노래는 발매 직후 음원차트 실시간 순위 11위에까지 올랐고, 7일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100만뷰를 넘겼다.

● '책임감은 누구도 못 따라와'

그의 20년을 요약하면 단연 '책임감'이다. '1박2일 시즌4'의 멤버인 가수 라비, 단단 등은 수차례 "문세운의 책임감에 놀랐다"고 혀를 내둘렀다.

NQQ·디스커버리채널 코리아 예능프로그램 '고생 끝에 밥이 온다'를 연출하는 이준석 PD도 마찬가지다. 8월이 PD는 "문세운은 돌발 상황에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한다"면서 "프로그램의 방향성까지 함께 고민할 만큼 든든하다. 20년간 쌓은 안목과 여유로 시청자와 출연자, 제작진 사이를 조율하는 힘이 방송가에서 사랑받는 배경"이라고 짚었다.

그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문세운은 7일 '2021 올해의 브랜드 대상' 엔터테인먼트 부문에 수상하면서 "도전 자체가 즐겁다. 새로운 장르에 아낌없이 도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쇼핑 LIVE



1879

NAVER '1879쇼핑' 검색

- 9월8일 마셋제로 와인
- 9월15일 커스텀 골프볼
- 9월29일 1879골프클럽-유틸리티
- 10월6일 1879골프클럽 드라이버-우드
- 10월13일 커스텀 골프볼2차
- 10월20일 1879골프클럽 퍼터-고병탈
- 10월27일 ORAC79골프클럽 풀세트

* 라이브 방송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